

[보도자료]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임직원 성금 전달

2024. 1. 9.



(왼쪽부터) 전달식에 참석한 최은화 어린이병원장과 엄성환 CFS 대표이사

- CFS 임직원 11,700명 '천원 기부'로 성금 마련
- 2024년에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전개

2024. 01. 09. 서울 -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이하 CFS)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한 임직원 성금을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과 통합케어센터 어린이병원학교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CFS는 8일 오후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 임직원 11,700명이 모은 성금 1천170만 원과 스마트 기기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은화 어린이병원장과 엄성환 CFS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CFS 조직문화 팀은 지난 12월 어린이 환자들의 건강을 응원하며 ‘천원 기부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에 전국 각지의 쿠팡 물류센터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성금을 모았다. 회사는 이에 더해 어린이들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추가로 마련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는 “새해를 맞아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전달드린다”라며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있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화 어린이병원장은 “아이들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신 쿠팡물류센터서비스 임직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린다”라며 “우리 아이들을 가족이 있는 집으로, 친구들이 있는 학교로 건강하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1999년 전국 최초의 병원학교로 개교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는 소아암·백혈병 진단을 받은 학령기 아이들에게 2~3년 동안의 치료 후에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식 출석 기관이다. 지금까지 24년간 병원학교를 다닌 어린이 환자는 총 7,000여 명에 달한다.

한편, CFS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지속하고 있다. 헌혈증 기부, 국립서울현충원 묘역 단장, 창경궁 가꾸기 활동에 이어 최근에는 과천 꿀벌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